

* 이 논문은 <이중언어학> 제15호 (이중언어학회, 1998. 12.)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통일에 대비한 국어교육 방안 연구¹⁾

연구 책임자 : 박영목 (홍익대 사대)

공동 연구자 : 이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목차>

I. 서론	III. 통일에 대비한 국어교육 방안
II. 남북한 국어교육의 비교 분석	1.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 정책 방향
1. 남북한 국어교육의 변천 과정	2. 통일 이전 시기의 국어교육 정책 방안
2. 남북한 국어교육의 성격과 목표	3. 통일 이후 시기의 국어교육 정책 방안
3. 남북한 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	IV. 결론

I. 서론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들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우리는 지금 통일을 대비한 교육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일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시점에 처해 있다. 동서 냉전의 종식 및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찾아 온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와 분열 현상, 국익을 중심으로 한 국가간 통합 현상, 김일성 사후 북한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과 이로 인한 체제 변화의 여러 가지 징후들은 우리가 통일을 대비한 교육적 전략들을 정치하게 마련해야 할 시점에 처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국토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남북한 사이의 문화적 교류가 차단된 이후에도 우리 민족은 단일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남북이 분단된 지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남북한의 언어 사용 현상에 있어서는 심각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일상적인 대화 차원의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언어 사용 현상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결속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남북한간에 이질화되어 있는 언어 사용 현상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남북 통합도 민족 구성원간의 화합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

¹⁾ 이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언어 사용 현상의 차이를 가져 온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추진해 온 언어 정책상의 차이와 국어교육 정책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의 국어교육 현상과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는 국어교육 관련 학문 분야의 연구, 일반 교육적 차원에서 수행한 연구,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수행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어교육 관련 학문 분야인 국어학, 국문학 분야의 연구는 대부분 어학적, 문학적 관점에서 북한의 언어와 문학에 관한 사실적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었을 뿐 교육적 시사점은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일반 교육적 관점에서 수행한 연구는 국어교육 내용 차원의 연구가 아니라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의 주제를 분석하여 정치적 성격과 교육적 성격을 밝혀 내는데 한정되어 있어 국어교육 현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국어교육학적 관점에서 수행한 연구도 북한의 국어교육 현상을 밝혀 내는 데 치중하고 있어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적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교육은 의도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 행위이다. 따라서, 통일 시대에 있어서 민족적 화합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주는 국어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시급한 연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극히 부진한 상황이다.

통일에 대비한 국어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한의 국어교육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의 분단상태 아래서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국어교육 체제를 발전시킨 결과 남북한 사이에는 국어교육의 목표와 성격은 물론 내용과 방법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 조건인 국어 생활의 차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민족적 정서와 가치관의 차이를 초래하게 되어 통일의 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 시기에 있어서의 사회문화적 갈등을 심화시키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통일에 대비한 국어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할 점은 남한의 국어교육 체제를 갖대로 하여 북한 국어교육의 문제점만을 부각시키고 남한 국어교육의 장점만을 일방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생들에게 반공 정신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민족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통일 대비 교육으로는 부적절한 것이다.

1945년 광복 이후 북한이 전개해 온 국어교육 정책은 국어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등의 차원에서 남한의 그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할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국어교육을 강력하게 실천해 오고 있다. 북한은 사회 체제 유지와 주체 사상 공고화의 수단으로써 국어교육을 설계하고 실천해 왔다. 북한의 교과서는 김일성과 그 일가에 대한 허구적 칭송과 관련된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들 중 상당 수는 북한이 인위적으로 개조한 소위 문화어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상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피교육자의 민족관, 국가관, 세계관, 인생관 형성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을 대비하는 현 단계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북한의 국어교육 정책을 체계적이

고도 면밀하게 분석함과 아울러 남북한의 국어교육이 지니고 있는 차이를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비교 분석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남북한의 언어 사용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국어교육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국어교육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한 국어교육 현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즉, 북한이 광복 이후 전개 해 온 국어교육의 실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는 북한이 발행하여 북한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 국어교육의 비교는 국어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등의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국어교육관 및 학습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통일에 대비한 국어교육 방안을 교육 통합 준비 과정, 교육 통합 추진 과정, 교육 통합 과정으로 나누어 탐색하고자 한다.

II. 남북한 국어교육의 비교 분석

1. 남북한 국어교육의 변천 과정 비교

북한의 국어교육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언어와 문예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데 그 특성이 있다. 북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어교육 성격은 국어 교과를 ‘정치 사상 교육을 담당하는 교과’로 규정하는 점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강조점에 있어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이인제 1996). 1960년대에 들어 김일성은 언어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러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말과 글을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혁명 전통 사상과 주체 사상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어교육의 내용을 강화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인식한 문화어를 보급하는 데 주력하였다. 1980년대에는 전체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달성하기 위한 언어 혁명의 방향을 혁명적 언어 생활 기풍의 확립으로 설정하고 국어교육에서도 이러한 기풍의 확립 활동을 중시하였다.

1960년대는 북한의 교육 이념인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와 이를 기초로 북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의 양성을 위한 이론과 방법을 정립해 나간 시기이다(강근조, 1990). 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의식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한다는 것은 공산주의 혁명가 양성이라는 북한 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시 의도했던 교육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북한의 교육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주입하

기 위한 유일 사상을 강조하고, 주체 사상과 당정책, 혁명 전통을 주입시키는 방향성을 잡게 되었다.

1970년대에 북한에서 추진한 국어교육의 특성 중의 하나는 문화어 교육의 강조하고 할 수 있다. 1996년에 김일성이 말과 글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힘있는 무기라고 규정한 이후 북한에서는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문화어를 쓰도록 하는 언어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 왔다. 김일성은 “모든 학교들에서 조선어교육을 더욱 개선강화하며 모든 기관들에서도 국어학습 제도화” 할 것을 강조 한 바 있는데 (김일성 저적 선집 4권 12쪽), 북한에서는 국어교육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문제는 우리말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리며 그 주체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 이유는 민족어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이 “바로 민족어의 창조자이며 소유자인 인민대중과의 사업이며 민족어를 어떻게 대하도록 이끌어 주는가를 규정짓는 사업(김영환, 1971)”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 북한 국어교육의 성격을 규정짓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김일성의 언어 문제에 대한 사상 및 이론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김정일의 언어 이론이 국어교육의 성격을 규정짓는 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의 언어 이론은 김일성의 주체의 언어 이론을 어느 정도 체계화 한 것으로서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언어 생활 기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말과 글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들고 있다(최정후, 1990). 김정일이 제시한 언어 생활 이론은 주체 사상의 요구에 맞게 언어 생활을 개선 발전시킴과 아울러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언어 생활 기풍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남한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일곱 차례에 걸쳐 제정 고시되었다. 교육과정 총론을 기준으로 할 때, 1차에서 2차까지의 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바탕을 두었으며, 3차 교육과정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4차 및 5차 교육과정은 인간 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6차 및 7차 교육과정은 통합적 교육과정 이론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배경 이론은 총론의 교육과정 이론과 그 궤를 약간 달리하고 있다. 제3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인간 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제6차 및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통합적 교육과정 이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교육 내용의 구조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학습 내용의 축소 및 통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이인제 외, 1997).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는 큰 틀에서는 제6차와 큰 차이가 없으나 세부적인 면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교육의 목표를 국어사용 능력 신장에 두고,

국어교육의 성격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이 국어교육의 상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호보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국어 교과와 성격의 규정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정확한 국어사용 능력의 신장, 국어 문화의 향유, 가치 있는 새로운 국어 문화의 창조 등을 국어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 남북한 국어교육의 성격과 목표

80년대 초 북한은 학생들을 김일성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기 위해 김일성의 혁명 사상과 주체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말과 글에 대한 기초 지식과 문화어와 혁명 문학에 지식을 풍부하게 해주고 글읽기, 말하기, 글씨 쓰기, 글짓기와 글 감상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국어 교수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국어 교과서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가 갖추어야 할 사상 도덕적 품모와 주체의 혁명 위업 달성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최해룡, 1980). 이것은 국어교육의 내적 필요성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북한 사회가 지향한 혁명 위업 수행을 위한 세습제의 필연성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한다는 교육 지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에 북한에서 전개한 국어교육의 내용은 60년대 이후 강조해 온 내용에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에 두 차례 개정된 교육 과정과 교수 요강 자료를 중심으로 인민 학교와 고등 중학교에서 전개한 국어교육의 실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남한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수 요강에 비교적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북한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에서 제시한 고등중학교 4-6학년용 국어문학 과목의 교수 요강을 보면, 북한이 추구하는 국어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을 김일성과 김정일에 충성을 다하는 혁명 전사로 키우는데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어교육의 내용은 김일성의 혁명 사상, 주체 사상, 주체적 언어 문예 사상과 김정일의 언어 문예 방침을 중심으로 하여 언어와 문학에 관한 기초 지식, 언어 사용의 실천적 기능, 혁명적 정서와 사고력 신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은 주변적 의미만 갖는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4-6학년용 국어문학 과목 교수 요강에 제시된 국어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고등중학교 《국어문학》 과목 교육의 목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 사상과 주체적 언어문예사상,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의 언어문예방침으로 학생들을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언어와 문학에 대한 일반기초지식과 실천적 기능을 키워주고 혁명적 정서와 사고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 있다.”(북한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1984).

북한의 국어문학 과목 교수 요강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 중등학교 국어교육

의 목표와 내용 체계를 분석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 목적 :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 양성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풍부한 정서)
- ② 목표 : ㉠ 주체적 문예 사상과 문예이론 체득 ㉡ 문학 작품의 자립적 분석 능력 ㉢ 말과 글을 다루는 창조적 능력
- ③ 내용 : ㉠-1. 김일성의 주체 문예사상 ㉠-2. 김정일의 주체 문예이론 ㉡-1 문화어의 기초 이론 ㉡-2 문학의 일반적 개념 ㉡-3 문학사의 전개 과정 ㉡-4 문학사의 시기별 대표 작가와 작품 ㉢-1 세계문학의 기초 지식 ㉢-1 말하기 기능 ㉢-2 읽기 기능 ㉢-3 글짓기 기능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북한 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국어교육의 지향점은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 인민에 대한 사랑, 풍부한 정서를 지닌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 둘째, 북한이 국어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는 주체적 문예 사상과 이론으로 무장시키고 문학 작품의 자립적 분석 능력을 체득하게 하며 혁명적인 말과 글을 다루는 창조적 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양성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셋째, 교과서의 학습 체제가 내용 차원의 ㉠ → ㉡ → ㉢ 순으로 배열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이 언어 학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으나, 학습 체제가 담고 있는 학습의 내용이 문제이다. 내용 차원의 ㉠과 ㉡는 분단 이후 북한이 강조해 온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또한 북한이 독자적으로 추구해 온 문화어와 혁명적 문학에 관한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말과 글을 다루는 창조적 능력을 목표로 하는 범주의 교육 내용 또한 창조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말과 글에 대한 창조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사상 교양을 위한 자료의 내용을 목적에 맞게 가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언어 기능은 사상 교양을 목적으로 제시한 교육의 내용을 더욱 철저하게 주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가치가 있다. 이것이 현재 북한에서 전개하고 있는 국어교육의 실체이자 남한의 국어교육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다. 또한 이것이 통일 시대의 민족 화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국어교육을 계획할 때에 유의해야 할 점이다.

1998년도에 고시한 남한의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서의 국어 과목을 설정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국어 과목의 성격을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화 사회에서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영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 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어 과목에서는 국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목적과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국어사용 양상과 내용을 정확하고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언어와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언어 현상을 탐구하고 국어 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심미적 정서를 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어와 문학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태도를 길러 성숙한 문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3. 남북한 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양제2사범대학에서 발간한 ‘국어교수법’(1973)에서는 북한의 국어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지식의 체계와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하고 있다. 첫째는 우리 말과 글의 일반 지식과 기능을 형성시킴으로써 당의 의도와 정책을 옳게 파악하고 이해하게 하며, 과학과 기술,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언어적 지식을 담아 주는 내용이다. 둘째는 문학 예술에 대한 일반 지식과 기초 기능을 형성시킴으로써 사회 생활의 필수적인 요구의 하나인 문화 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전문적인 문학 예술 작품 창작의 토대를 닦아 주는 내용이다. 셋째는 학생들의 정신 생활을 풍부히 하고 생활 지식을 넓히며 현실 분석의 기초 능력을 형성시킴으로써 당의 유일 사상 체계에 확고히 의거하여 생활과 투쟁을 자각적이고 창조적으로 조직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닦아 주는 내용이다.

북한 국어교육의 내용 체계는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지식, 문학 등의 영역별로 구조화되어 있다. 북한의 국어 문학 교수 요강의 본문 편에 제시된 학년별 지도 내용은 해당 학년 교과서의 목차와 일치하는데 고등중학교 1-3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는 국어 교과서의 말하기 영역 지도 내용을 정리하여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말하기 기능에 관한 내용과 활동

① 자세히 말하기 : 글토막의 순서 바꾸기, 동시의 내용 자세히 말하기, 대화에서 중요한 것을 그대로 옮기면서 자세히 말하기, 시를 서술말로 고쳐 말하기, 사상적 내용의 교재를 들으면서 말하기

② 추려 말하기 : 인물의 마음이 잘 표현된 대목 추려 말하기, 들은 내용 추려 말하기

③ 줄거리 말하기 : 줄거리를 차례대로 말하기, 주어진 요건에 맞게 말하기

④ 느낀 점 말하기 : 느낀 점을 생활과 결부시키기, 느낀 점과 결의 말하기

⑤ 내용 조직하기 : 내용의 체계 세우기, 예를 들어 설명하기, 중심 내용 말하기, 연역적 말하기, 귀납적 말하기

⑥ 언어 표현하기 : 직접 전달법을 간접 전달법으로 고쳐 말하기

(2) 말하기 태도 및 습관에 관한 내용과 활동

① 언어 예절 : 말하기에서 언어 예절의 중요성

② 선전 활동 : 선전을 잘하기 위해 해야 할 일

북한의 국어교육 내용과 남한의 국어교육 내용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또한, 북한이 선정한 교육 내용은 조직의 측면에서 정교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정 인물과 관련지어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말하기 교육에서 학생들 자신의 사고 과정을 거쳐 말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자신의 언어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하는 내용보다는 말할 내용을 교과서에 직접 제시하고 그 내용의 한 부분을 변형시켜 앵무새처럼 외게 하거나 이데올로기 관련 내용을 주입하기 위해, 이른바 혁명 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암송하게 하는 식의 ‘이야기하기’ 형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언어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여 사상 교양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읽기 교육의 내용이 낭독하기 중심으로 선정되었고, 특히 읽기 제재 관련 독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북한에서의 읽기 제재는 주로 김일성과 그 일가의 우상화 관련 제재이기 때문에 글의 내용에 대해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이른바 해석적, 비판적 수준의 읽기 능력을 계발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또 이것이 말하기 활동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는 듯하면서도 특정 내용을 암기하게 하는 방편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읽기 교육의 내용으로 읽기 자료에 대한 비판적, 해석적 수준의 읽기 활동이나 그를 위한 교육 내용이 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쓰기 교육에서도 문장 수준의 글쓰기 지도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담화 구성하기, 즉 글 수준의 글쓰기 지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물론 글쓰기의 기초가 문장 수련에 있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단순 기계적 반복 훈련에 지나지 않는 짧은글짓기 일변도의 내용 선정은 남한의 쓰기 교육관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언어 사용을 중시하기보다는 특정 인물에 대한 우상화의 한 방편으로, 그것도 사상 교양과 관련되는 특정 내용을 주입하기 위해 교육을 수단으로 삼는 구체적인 예가 된다.

북한의 국어교육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언어 지식의 교육 내용 선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언어 지식 교육 내용 선정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점은 북한이 민족어의 발전 법칙에 맞게 개선하였다고 하는 사회주의 민족어의 전형으로서의 문화어의 문법 체계와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남한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선정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국어교육은 특정인을 우상화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우상화의 내용을 세뇌시키고, 이를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고등 중학교 1~3학년의 경우, 말하기 교육의 내용이 인민 학교에서 강조하였던 이야기하기보다는 말하기에 초점을 두어 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전적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고등 중학교 4~6학년 단계에서 줄거리 말하기와 웅변하기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웅변하기는 북한의 말하기 교육관을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서, 선전 선동이라는 사회적 필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 보는 언어관이 교육

적 상황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정권적 차원의 요구가 읽기 교육의 내용 선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살려옴기와 살려읽기 등 주로 낭독 지도 중심의 내용 선정이 그 예이다. 또한 글쓰기의 지도 내용도 보다 긴 텍스트 수준의 언어 표현력 신장과 관련된 내용과 필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목적 의식에 강조되어 교육 내용을 선정한 것도 그 예다. 그 결과 남한에서는 용어조차 생소한 벽소설, 가사, 영화 문학 쓰기가 교육의 내용으로 선정되어 있다.

문학 영역 교육 내용은 남한과 공유하고 있는 점이라고는 근대 이전의 문학 작품과 일제 강점기의 문학작품이 있다는 점이나, 문학사 전개에 대한 설명과 해당 작품을 선정한 의도, 작품에 대한 평가 등의 면에서 북한의 문예관이 반영되어 있어, 엄격하게 말하면, 동질적인 교육 내용이 없다. 특히, 북한의 문학 교육이 문학에 관한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그 뿐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의 문예 사상 및 이론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의 구현이라 할 수 있는 당의 정책 및 방침에 관한 것까지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 작품의 이해와 감상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품모와 덕성을 주입·강화하기 위한 내용 위주로 선정되어 있기도 하다. 이것은 북한이 설정한 고등 중학교 국어 문학 과목의 교육 목표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남한에서 인식하고 있는 바람직한 문학 교육과는 그 방향이 너무 다르다. 북한이 문학 교육을 위해 선정한 교육 내용은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 양성에 귀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이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로 혁명 사상과 주체 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계획·실천하고 있는 국어교육의 내용이 남한이 준비해야 할 통일 이전 단계의 국어교육, 통일 이후 단계의 국어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적지 않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Ⅲ.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 방안

1.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 정책 방향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 정책 방향은 정부의 통일 정책의 기초 위에서 설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통일부, 1998).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3대 원칙은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 도발 불용, 흡수 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등이다. 여기서 ‘무력 도발 불용’ 원칙은 전쟁 억제를 위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상응한 대응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에 의존하는 대남 전략·전술을 포기하게 만들고,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함으로써 무력도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흡수 통일 배제’ 원칙은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기보다 남북간의 평화 공존을 통해 남북연합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감과 동시에 남북연합을 단계적으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평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원칙은 분단 이후 누적되어 온 남북간의 적대감정을 해소하고 상호이해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가능한 분야부터 대북 화해·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중단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를 복원하고, 북한이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남북간에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 전체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대북 정책의 3대 원칙 중에서 통일 대비 국어교육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일과 직결되는 원칙은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원칙이다.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 정책 방향은 정부의 통일 정책뿐만 아니라 통일 대비 교육 정책에 부합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통일 정책 자료(통일부, 1996)에 의하면 통일 대비 교육의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통일 대비 교육은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한은 분단이후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이질적인 문화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남북한은 여전히 많은 전통적 문화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대비 교육에서는 이러한 동질성을 재확인하고, 이 동질성이 보다 민족 통합적인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하는 일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 대비 교육은 북한사회가 이룩한 나름대로의 성과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발전 전략이 실패하였다는 것은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심각한 식량난이나 억압적인 인권실태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민족 통합이라는 지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룩해 온 나름대로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해 주는 자세를 교육하는 일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 대비 교육은 통일이 가져 올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측면을 올바르게 알려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이며, 통일이 국가와 민족 구성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일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 통일 대비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공식적 자료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북한사회의 구체적인 실상,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같은 미시적인 수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통일 대비 교육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족 전체의 발전에 있으므로 앞으로 도래할 미래환경에 적합한 통일교육 즉, 통일한국의 위상, 통일한국이 지향할 미래사회 등에 대한 교육이 정보화의 물결이라는 맥락 속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통일 대비 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 대비 교육을 위해서 독립된 교과를 설정하기보다는 모든 교과를 통일과 연관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든지 통일과 관련한 특별활동을 구성하여 어린 시절부터 생활 속에서 통일을 생각하게 하는 교육 활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통일에 대비한 국어교육 정책은 통일 실현의 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실현의 단계는 통일 이전 시기와 통일 이후 시기로 구분할 수도 있고(이인제, 1996), 교육 통합 준비 단계와 교육 통합 대비 단계와 교육 통합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송병순, 1998). 여기서 교육 통합 준비 단계는 교육통합을 위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 남북이 공동으로 교육통합을 대비하는 단계에서 필요할 교육자료와 교육정보의 수집, 교육통합 대비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등 통합 대비를 위한 전 단계의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교육통합 대비단계는 남북 교육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남북 교육회담을 통해서 남북 교육체제가 종적·횡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상호 수렴하는 교육체제를 모색함과 아울러 분단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민족이 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교육통합 단계는 실질적으로 통일된 국가에서 민족과 국민을 통합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단계로서 남북한 국민이 모두 똑같은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같은 교육을 받는 단계이다.

통일에 대비한 국어교육 정책은 정부의 통일 정책과 통일 대비 교육 정책의 기초 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에 대비한 국어교육 정책은 통일 이전 시기의 정책과 통일 이후 시기의 정책으로 구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 이전 시기의 정책 내용은 다시 교육 통합 준비 과정과 교육 통합 추진 과정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국어교육 방안을 통일 이전 시기와 통일 이후 시기로 구분하여 제시해 보기로 한다.

2. 통일 이전 시기의 국어교육 정책 방안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언어와 언어 문화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 언어 사용 상황에서 남북한 사람이 서로 이질감을 느끼거나 의미 해석에 있어 차이를 절감해야 하고 그 때문에 좌절감을 맛본다면, 진정한 의미의 민족 화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언어와 언어 문화의 통합이 정치, 경제, 사회의 통합보다 우선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한과 북한의 국어교육은 제Ⅱ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목표와 내용 면에서 동질적인 요소보다는 이질적인 요소가 더 많아 보인다. 서로의 언어관이 다르고, 문학관이 다르다. 국어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 또한 다르다. 교과관이 다르고, 학습자관이 다르다. 거기다가 남북한간에 실재하는 언어 차이는 물론 언어 의식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하여 형성되었을 정신

세계의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이 정치 군사적으로 분단된 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고, 북한이 정권적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언어 개혁을 단행하고 언중의 언어 생활을 혁명적 방법으로 통제하였다고는 하나, 남북의 언어가 분단 이전의 공통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언중의 언어 습관 및 언어 의식이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며, 남북한의 언어는 이질적인 요소보다는 동질적인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차이 또한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김일성이 인간 개조라는 명제를 내세워 언중의 언어 의식까지 자기 방식대로 개조하고자 정권적 차원에서 언중의 언어를 강제 통제해 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기간도 결코 짧지 않은 50여 년이나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의 언어 차이 내지는 언어 의식의 차이가 쉽게 극복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남북한 주민의 언어 사용 상의 차이와 그 의미의 차이로 인한 해석 상의 엇갈림을 해소하는 데에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인내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통일 이전 시기의 국어교육 정책은 정치 군사적 분단과 문화적 차단으로 인한 북한의 폐쇄 상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야기될 수도 있는, 언어 사용 상황에서 나타날 심각한 화용론적 차이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동일한 형태의 낱말에 대한 화용론적 의미의 차이는 남북의 언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이질감의 차원을 넘어 좌절감을 심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차이는 우선 문화적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그 간극을 좁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 이전 시기의 국어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 분단 이후, 북한의 언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고 남북 언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인식시킴으로써 남북의 언어 사용자들이 상호 교류할 때 야기될 수 있는 화용론적 차이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남북의 언어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교육의 내용으로 선정하여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북한의 언어가 남한의 언어와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것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의 언어 차이가 생기게 된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언어 현상과 문학 현상 및 국어교육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일은 이념적 문제보다는 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 일이다. 국토 분단 이후 지난 50년 동안, 북한이 지향해 온 이념 체계가 남한과 달랐고, 이를 지탱하는 체제 또한 달랐다. 따라서, 이념적인 문제보다는 교육의 내용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어떤 원리에 따라 조직되었는지 등과 같은 국어교육 활동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국어교육 현상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어교육의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미리 수행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실현된 이후에 통일 한국에서 사용할 교육 과

정과 교과서의 통합 방안을 생각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때늦을 뿐만 아니라, 그 때의 혼란은 이루 형언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북한의 국어교육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 통일 한국의 국어교육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교수 학습 용어 문제, 교육 내용의 선정 기준과 관점 등에 대한 엄정한 논의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통합하기 위하여 북한의 국어교육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이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북한이 발행한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되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는 언어 교육의 보편성에 비추어 해석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국어교육 정책의 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통일 이전 시기에 추진해야 할 국어교육 정책 방안을 교육 통합 준비 과정과 교육 통합 추진 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해 보기로 한다.

가. 교육 통합 준비 과정에서의 국어교육 정책 방안

교육 통합 준비 과정에서 추진해야 할 국어교육 정책 방안들을 언어 사용,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등의 이질화 현상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와 국어교육 통합 방안 연구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언어 사용의 이질화 현상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 ①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표기의 차이 ② 국어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상의 차이 (형태 및 의미) ③ 국어 교과서에 사용된 문장의 통사론적 차이 ④ 국어 교과서에 사용된 텍스트 구조상의 차이 ⑤ 맞춤법 규정(국어 표기 규정)상의 차이 ⑥ 표준어 규정 및 표준어의 차이

(㉡) 국어과 교육과정의 이질화 현상 확인을 위한 비교 분석 연구 : ① 국어교육의 이념과 성격 ② 학교급별 국어교육의 목표 ③ 학교급별 및 학년별 국어교육의 내용 ④ 학교급별 국어교육의 방법 ⑤ 학교급별 국어교육의 평가 ⑥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체제 및 활용 체제

(㉢) 국어 교과서의 이질화 현상 확인을 위한 비교 분석 연구 : ① 교과서 체제 ② 학습 활동 내용 ③ 학습 체제 ④ 국어 교과서 개발 체제 및 활용 체제

(㉣) 국어교육 통합 방안 연구 : ① 언어 사용의 이질화 현상 극복 방안 ② 국어과 교육과정의 이질화 현상 극복 방안 ③ 국어 교과서의 이질화 현상 극복 방안 ④ 국어교육 통합 절차와 통합 계획

나. 교육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국어교육 정책

교육 통합 추진 단계는 남북 통일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교육 통합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해당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추진해야 할 국어교육 정책 방안들을 언어 사용,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등의 이질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극복 방안 수립

과, 수립된 국어교육 정책의 실제적인 수행으로 구분하여 제시면 다음과 같다.

(가) 언어 사용의 이질화 현상 극복 방안 수립: ① 언어 사용의 이질화 현상 극복 방안 수립을 위한 남북 공동 위원회 구성 ② 남북 공동의 표기 규정 제정 방안 수립 ③ 남북 공동의 표준어 규정 제정 방안 수립 ④ 국어교육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이질화 현상 극복 방안 수립

(나) 국어과 교육과정의 이질화 현상 극복 방안 수립 : ① 남북 국어교육학자들로 구성된 국어과 교육과정 통합 위원회 구성 ② 통일 시기의 국어교육 이념 설정 및 성격 규정 ③ 통일 시기의 학교급별 국어교육 목표 설정 ④ 통일 시기의 학교급별 국어교육 내용 체계 설정 및 내용 선정 ⑤ 통일 시기의 학교급별 국어교육 지도 방법 및 평가 방법 설정 ⑥ 통일 시기의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체제 및 활용 체제 설정

(다) 국어 교과서의 이질화 현상 극복 방안 수립: ① 남북 공동의 국어 교과서 편찬 위원회 구성 ② 통일 시기의 국어 교과서 개발 방안 수립 ③ 통일 시기의 학교급별·학년별 국어 교과서 학습 활동 내용 선정 ④ 통일 시기의 학교급별·학년별 국어 교과서 제재 선정

(라) 국어교육 통합에 대비한 국어교육 정책 수행 : ① 남북 공동의 표기 규정(안) 및 표준어 규정(안) 제정 ② 남북 공동의 국어과 교육과정(안) 개발 ③ 남북 공동의 실험용 국어 교과서 개발 ④ 국어교육 통합에 대비한 국어 교사 재교육

3. 통일 이후 시기의 국어교육 정책 방안

통일이 실현된 이후의 국어교육 정책은 남북한간에 실재하는 이질적 요소를 극복하고 동질적 요소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한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으로서 광복 이후 북한이 독자적으로 전개해 온 국어교육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남북의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연구 성과도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들은 민족 화합을 지향하는 국어교육을 계획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에서는 통일이 실현된 이후 국어교육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주요 문제들을 탐색해 보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한 통일 이후 시기의 국어교육 정책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첫째, 통일 시기의 국어교육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의 관점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극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현재 남한과 북한간의 언어관, 문학관, 국어교육관에는 심각한 괴리가 있다. 이에 따라 국어교육이 지향해 온 목표가 다르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선정한 교육 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현실은 민족 화합을 위해 이질적인 요소보다는 동질적 요소를 살려 나가야 한다는 대전제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의 국어교육 차원에서는 이질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난 50여년 동안 북한이 인간 개조 차원에서 언어 및 문학 예술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형성되었을 사고 양

식은 물론 정신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 시기의 국어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를 남북 합의하에 공동으로 설정하였다 할지라도 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를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둘째, 통일 시기의 국어교육 실천에 있어서 교육 언어의 선택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피상적인 관찰 결과를 근거로 하는 경우, 남한과 북한간의 언어 차이는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교육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소한 차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고, 실제 교육의 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언어 차이가 훨씬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 중 어느 것을 통일 한국의 표준어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쪽에서는 국어교육의 본질적 측면보다는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을 교육의 주된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 차이는 발음, 표기, 억양 등과 관련된 것이 있는가 하면, 보다 본질적으로 의미 차원에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뿐더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과도기적 조치로 복수나 통합 표준어를 인정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 과정의 문제, 교과서의 문제, 교사 교육의 문제 등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인다.

셋째, 통일 시기의 국어교육 실천에 있어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에 심각한 문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많다. 제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한과 북한이 현시점에서 공유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은 매우 적은 편이다. 특히, 언어 지식과 문학 작품 감상을 위한 교육 내용의 경우는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통일 시기의 국어교육 실천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문제도 그리 간단하지가 않을 것이며, 민족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일 이후 시기의 교육 통합 과정에서 추진해야 할 국어교육 정책 방안을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국어 사용의 이질화 현상 극복 방안 추진
 - (가) 남북 공동의 표기 규정 제정, 교육 및 활용
 - (나) 남북 공동의 표준어 규정 제정, 교육 및 활용
 - (다) 국어교육 상황에서의 국어 사용 이질화 현상 극복 방안의 체계적 추진
 - (래) 국어 사용 이질화 현상으로 야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 기구 설치 운영
- (2) 통합된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용
 - (가) 남북 공동의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 (나) 남북 공동의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국어 교사 연수
 - (다) 통합된 국어과 교육과정 운용에서 제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체제 운영
- (3) 통합된 국어 교과서 개발 및 활용
 - (가) 남북 공동의 국어 교과서 개발

- (나) 남북 공동의 국어 교과서 활용 방법에 대한 국어 교사 연구
- (다) 통합된 국어 교과서 활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체제 운영

IV. 결론

북한의 국어교육 현상과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는 국어교육 관련 학문 분야의 연구, 일반 교육적 차원에서 수행한 연구,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수행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어교육 관련 학문 분야인 국어학, 국문학 분야의 연구는 대부분 어학적, 문학적 관점에서 북한의 언어와 문학에 관한 사실적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었을 뿐 교육적 시사점은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일반 교육적 관점에서 수행한 연구는 국어교육 내용 차원의 연구가 아니라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의 주제를 분석하여 정치적 성격과 교육적 성격을 밝혀 내는데 한정되어 있어 국어교육 현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국어교육학적 관점에서 수행한 연구도 북한의 국어교육 현상을 밝혀 내는 데 치중하고 있어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적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교육은 의도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 행위이다. 따라서, 통일 시대에 있어서 민족적 화합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주는 국어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시급한 연구인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극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이 실천하고 있는 국어교육의 실상과 남한이 실천하고 있는 국어교육의 실상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 광복 이후 전개 해 온 국어교육의 실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과정에서 가급적 북한이 발행하여 북한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국어교육 실상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남북한 국어교육 현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남북한 국어교육 현상의 비교는 국어교육의 변천 과정, 성격, 목표, 내용, 방법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어교육관 및 학습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국어교육 방안을 교육 통합 준비 과정, 교육 통합 추진 과정, 교육 통합 과정으로 구분하여 탐색해 보았다.

이 연구는 북한의 국어교육 현상을 정치하게 분석하고 이를 남한에서 계획 실천하는 국어교육과의 객관적인 비교를 통하여 통일 시기에 조기에 언어를 통일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에 사는 주민이 서로 화합하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국어교육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연구 결과는 북한의 국어교육 현상은 물론 실천 양상을 비교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국어교육은 김일성과 그 일가를

우상화하는 도구라든가 정치 사상 교육적 성격이 강하다는 일반화된 시각보다는 개관적인 관점에서 북한 국어교육의 이념 및 지향점과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이 연구 결과는 남북한 국어교육의 차이점 못지 않게 동질적인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남북한 국어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에 대한 객관적 비교는 남북한 간 국어교육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언어의 통일 방향을 모색하는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셋째, 이 연구 결과는 통일이 실현되는 각 단계별 국어교육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각 단계별 교육 과정 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과 교과서를 포함한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 결과는 남북한 국어 교사의 연수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교육의 최종 수행자는 교사이기 때문에 통일 국가의 국어교육은 교사 교육의 성과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 결과는 남북한의 국어 교사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통일 이후 민족의 화합과 동질성 회복을 앞당기기 위하여 교사의 재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가. 북한의 연구 논저 및 자료

강근조. 조선교육사(4).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1.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김일성 동지와 조선 민족어의 개화 발전, 과학원 출판사, 1962.

과학원 출판사. 조선 노동당의 지도 밑에 개화 발달한 우리 민족어, 1962.

권중모.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에 맞게 언어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도, 조선어문 1990년 1호.

김병제.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우리 말과 글이 걸어온 영광의 10년, 문화어 학습 1980년 4호.

김영환. 조선어 교육을 더욱 개선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자면, 문화어학습 1971년 4호.

김일성, 김일성 저작 선집 제 7권

김정일. 주체 사상에 대하여. 동경 :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82.

류명은. 학교에서 문화어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어 학습 1981년 4호.

림광혁. 학교에서 문화어교육. 평양: 문화어학습 1970년 4호.

북한 고등중학교 국어 교과서 1 (1990), 2 (1990), 3 (1990).

북한 고등중학교 국어문학 교과서 4 (1990), 5 (1990), 6 (1989).
 북한 교육위원회 보통교육국. <과정안> : 인민학교 및 고등 중학교. 평양, 1983. 3.
 북한 교육위원회 보통교육국. 교수요강: 국어문학. 평양, 1984.
 북한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교수 요강 : 국어문학 고등중학교 4~6학년용, 1984.
 북한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 1-1 (1990), 1-2 (1990), 2 (1990), 3 (1991).
 사회과학원 주체 사상 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언어리론. 평양 : 사회과학원출판사, 1975.
 심병호. 현 시기 어학 혁명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평양: 문화어 학습 1982년 4호.
 정순기.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창시하신 독창적인 언어 생활 리론은 주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언어 생활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강력적 지침. 문화어 학습 1993년 1호.
 최정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언어리론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최해룡, 국어 교수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문화어 학습 1980년 4호.
 평양 제2 사범대학의, 국어 교수법, 사회과학 출판사, 1973.

나. 남한의 연구 논저

고려대 평화 문제 연구소. 북한 교육의 조명. 서울 : 법문사, 1990.
 고영근. 통일 시대의 어문 문제. 서울 : 길벗, 1994.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1992, 1998.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1994~1997.
 국어연구소.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 고유어 편, 1989.(전수태, 최호철)
 국어학회. 세계의 언어 정책. 서울 : 태학사, 1993.
 국토통일원. 북한의 교과서 분석. 1992.
 국토통일원. 북한의 학교 교육 과정 분석, 1987.
 국토통일원. 인간 개조론에서 본 북한 공산주의 교육 방법 분석, 1989.
 국토통일원. 인민 학교 국어 교과서 내용 분석 : 정치 사상 교육 실태를 중심으로. 1987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 서울 : 문맥사, 1990.
 김민수. 북한의 국어 연구, 일조각. 1989.
 김태환 박재윤 한만길 백성준. 남·북한 교육 통합 정책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1.
 김형찬. 북한의 교육. 서울 : 을유문화사, 1990.
 문용린. 민족 동질성 제고를 위한 교육 전략 : 교육 내용적 측면, 교육학 연구 28권 3호, 서울 : 한국교육학회, 1990
 문용린. 북한의 학교 교육 과정 분석 : 인민 학교 및 고등 중학교, 서울 : 통일원, 1987.
 박영목·손영애·정준섭. 제6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 PR 92-13-2), 1992.
 박영순. 사회 변동과 언어, 한국학 연구 제1집. 고대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1988,

- 박용현 문용린 윤희원 조영달. 남북 통일 대비 표준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대학교 통일 대비 교육 과정 연구 위원회, 1994.
- 북한 문제 연구소. 북한의 언어 정책 자료집, 1973.
- 북한 연구소 편. 북한 총람, 1980
- 송병순. 통일 국가의 교육 제도. 통일 논단 3-3-6, 1998
- 신일철. 북한 주체 철학의 비판적 분석. 서울 : 사회 발전 연구소, 1987.
- 윤희원. 북한의 국어교육에 관한 한 고찰, 주시경 학보 제 4집. 서울 : 탑출판사, 1989.
- 윤희원 · 박갑수 · 박영목 · 이주행 · 한철우. 남북한 중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서울대 사대 통일 대비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1997.
- 이성호. 북한의 중등 교육, 북한 교육의 조명, 서울 : 법문사, 1990.
- 이영덕. 민족 동질성 고양을 위한 교육의 과제. 교육학 연구 제28권 3호, 서울 : 한국교육학회, 1990.
- 이영선. 통일교육법 제정에 따른 통일교육 체제의 개선 방안. 통일 대비 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자료, 1997.
- 이인제. 북한의 국어교육에 관한 연구. 청원 : 한국교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6.
- 전수태. 북한의 언어 정책.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1992.
- 최현섭. 북한 국어교육 이론 고찰. 한글 제222호. 1993.
- 최현섭 · 이인제 · 최영환.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인천교대 통일 대비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 위원회, 1996.
-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 정책 추진 기초. 통일부 자료, 1998
- 통일부. 통일 대비 정책 과제 3: 통일 대비 교육, 통일 정책 자료, 1996.
- 통일부. 통일 문제의 이해. 통일 정책 자료, 1998.
- 통일원. 북한 인민 학교 국어 교과서 분석 : 정치 사상 교육 실태, 1987.
- 통일원. 북한의 교과서 분석 보고서. 1992.
- 한만길. 통일 시대 북한교육론. 서울 : 교육과학사, 1997